

“建築과 人間과 環境”

U·I·A 대회에 비친 世界의 建築 / 韓國의 建築 /
그리고 우리의 姿勢 · 未來

對談 / 具琬會〈本會會長〉

參席 / 羅相紀〈韓國 建築家協會副會長〉
/ 崔昌奎〈新進建築代表 · 本會會員〉
/ 金正湜〈正林建築代表 · 本會會員〉

/ 姜錫元〈구름가건축대표 · 本會會員〉

日時 / 1981 · 7 · 29 日

場所 / 本會會議室

다음은 지난 6월15일부터 25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와 카토비츠에서 각각 열렸던 국제건축가연맹(U·I·A)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대표단중 정대표 네분을 모시고 대담을 나눴다.

“건축과 인간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번 U·I·A 총회를 통해 비친 세계건축문화의 현주소와 또 우리의 현실, 나아가 새로운 방향모색등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 편집자 /



□3년마다 열리는 건축가들의 세계적인 잔치—, 세계열강 지도자들의 메시지로 국제대회면모파시

會長 UIA 총회에 참석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회소식과 보고 느끼신 소감, 또 이런 것은 우리 建築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하는 말씀들을 해주시지요. 經過부터…….

羅 우리가 UIA에 정식으로 加入된 것은 61년도 제9차 멕시코총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년전 일이지요. 그러다가 理事國으로 피선된것은 지난 75년도 13차 베니스총회에서입니다. 가입된지 14년후의 일이지요.

그래서 그전에도 UIA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75년이후, 理事國이 된 후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UIA총회는 3년마다 한번씩 열리는데 이번이 15차총회

로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는 大會를 열고 總會는 카토비츠, 두개 도시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공산국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러가지로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14차 때인 멕시코 대회에서 入國上에 모든 제약을 안하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결국 日本에 있는 폴란드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대표 4명그리고 읍저버 4명 모두 8명이 참석케 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1주일간 大會를 갖고 다시 카토비츠로 가서 總會를 마쳤죠. 이번大會의 主題는 “건축과 인간과 환경”(Architecture, Men and Environment)을 가지고 여러가지 서브타이틀로 나누어 워킹그룹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를 소개하면 ① 도시와 농촌개발(Urban and Rural Development) ② 공공보건(Public Health) ③ 주택(Habitat) ④ 상업공간(Commercial Space) ⑤ 교육과 문화공간(Educational, Cultural Space) ⑥ 전문직에 대한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등을

다웠고, 한편에서는 4 차례에 걸친 建築에 대한 評價會가 열렸는가 하면 또 다른곳에서는 슬라이드 혹은 영화를 통한 건축文化소개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르샤바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國家的인 차원에서 이번 대회를 이끌어 나가더군요. 시내 도처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EXPO라고 하는데, 대회장안에는 학생 設計競技와「EXPO Terra2」에 출품했던 입선작등이 전시됐습니다. 기성작가 作品도 전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전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국제적인 관심속에서 진행 되었다는 것은 대회 첫날 개회식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 일본의 스즈키 겐코수상 · 발트하임UN총장 · 페르난도 케리 페루 대통령 ·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서기장등이 축전 또는 메시지등을 보내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대회였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상이 1주일간의 바르샤바에서의 대회 내용입니다.

□공산국가이면서도 건축·건축가에 대한 인식
높아-, 공과대학에는 건축과가없고 건축대학
따로 있어=폴란드.

崔 일행중에 일곱분이 우리협회회원이고 따라서 이번총회의 소식을 회원들도 알아야 할것 같아 말씀드립니다.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간추려 소개하면, 첫번째로 폴란드건축대학을 찾아갔을 때 인데, 工科大学을 가서 건축과를 물었더니 건축은 공과대학에 속하지 않고 건축대학이 따로 있다더군요. 여기서 한마디로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리하고는 너무다르구나하는 생각에서 일일히 살펴 봤습니다. 두번째로는 2차대전이후 모든 건물·시설물들이 거의 모두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복원시켰어요. 건축가들의 큰 공로죠. 다만 그곳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지상의 개인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프랜대로 직선적으로 광범위하게 그대로 밀고나갈 수 있었다는게 우리의 경우와는 다른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가의 대우문제인데 그곳은 개인사무소가 없고, 모두 공무원 이더군요. 재미난 것은 불법건축또는 불법불평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돼요. 그리고 포스터나 조각 또는 건축의 모형등이 세련되고 수준이 높는데, 공산국가에서의 그런것이 과연 그나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 갈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에서 특기 할만한 것은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학생들의 작품전 얘기인데 이번에 특히 아세안의 세력이 강력하게 돋보였다는 점입니다. 입선작품 가운데 말입니다. 예를들면 태국·홍콩·일본·필리핀등지의 학생작품들이 다른 지역의 경우보다 압도적이더군요. 차

제에 우리도 학생들에게 알려서 다음부터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대략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행문에 상세하게 소개하죠.

會長 이번 UIA총회는 특히 공산국가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건축인 모두의 공동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觀點에서 세계속에서의 한국건축의 위치는 이번大會를 통해 어떻게 評價할 수 있으며 나아가 UIA를총회를 한국에 유치할 수 없겠는가, 아울러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대로의 좌표설정이 왜야 하겠고 건축인에 대한 당국의 인식제고 문제도 提起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건축사협회나 건축가협회 모두 거의 같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동보조를 취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 마련도 될줄 압니다. 폭넓은 말씀을 나눠 주시죠.

姜 이번 대회에 우리가 참석하게 된 것은 家協會나 士協會를 초월해서 건축인 모두가 힘을 합친 결과고 특히 UIA에 관계하고 계셨던 선배님들이 쌓아올린 공로가 바탕이 되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최지가 폴란드였다는 점에서 다소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제 個人생각으로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도 가졌읍니다. 더구나 불가리아에서 회의를 할 때 최회장님이 공산국가라고 해서 입국을 못한적도 있었고 해서..., 결과적으로 잘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번대회에는 약3천여명이 참석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학생작품전에서 우리가 아직 연결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서 우리 학생실력으로도 충분히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았다는 점이 딱 아쉬웠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널리 알려져 다음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다음으로는 都市再建문제, 모두 파괴된 건물들을 原型 그대로 복구했다는 점이 놀라웠고, 그 전시방법을 재미있게 했더군요. 사진은 이용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國家的인 次元에서大會를 이끌어 가더군요. 예를들면 참가자들에게 명찰을 달아주는데 그 명찰만 달면 전차나 버스등이 모두 무료더군요.

羅 약간 보충해 말씀드리면, 제가 폴란드 건축가연맹회장과 이번 UIA총회 집행위원장하고 한시간 가량 단독으로 만나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2차대전직후 폴란드건축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99%가 파괴된 도시를 우리들이 재건한다 하는 결의를 갖고 原型 그대로 살려냈다고 해요. 그당시 건축가들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5천여명이 된다고 하더군요. 戰後 36년간 그들의 노고가 상당했음은 우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괴된 폴란드 재건의 권한이 모두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되더군요. 다시 말해서 전문 분야의 일은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맡기는 정부의 자세 같은것 말

입니다. 물론 정치체제가 우리와는 비교가 안되지만 전문가를 믿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풍토는 우리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姜 會談때 저도 함께 있었는데,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말을 하더군요. 재건, 복구의 기본 방식을 “돌은 돌로, 벽돌은 벽돌로, 나무는 나무로 원형 그대로 복구하자”라는 정신으로 임했다고해요. 또 한가지 폴란드에서의 건축가의 地位가 어느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엿 볼 수 있는 면 가운데 제가 시내를 돌아본 일이 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도처에 있는 건물들을 소개하는데 이 건 A건축가가 몇년도에 설계한 작품, 저건 B건축가가 몇년도에 설계한 작품 하는 식으로 소개를 해요. 하다못해 보잘것 없는 개인 주택까지도 그런식으로 소개를 하더군요. 그 많은 건축가들을 일일이 기억하는데 참 놀람더군요. 우리와는 다른 일면이었습시다. 김사장님 좋은 것 많이보셨을 텐데 말씀좀 해주시지요.

□스케일 면에서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 건축—, 내용면에서는 建築主의 사고방식·施工방식·社會的여건 발전 필요

金 네, 한가지 저는 크게 느낀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自由世界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네들의 자유롭지 못한 생활, 사고방식, 문화생활, 가난등을 보고 결국 공산주의가 잘살수없다는것을 눈으로 보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큰 수확 중에 하납니다. 그들은 일을 안해요. 그 이유는 의욕이 없어요. 해도 자기한테 직접들어오는 소득이 없으니까 적당히 시간만 보내려는 자세가 역력해요. 또 한가지 우리나라의 위치가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 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면에서 구라파나 미국등지의 건축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우리들이 취급하고 있는 건물의 규모나 스케일이 세계적으로 조금도 그들에 비해 뒤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수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스케일은 크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서 內容은 어떤가하고 따져보면 아직 그런면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밖에 사회적여건, 건축주의 사고방식, 건설방식, 자재의 발전등 균등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문제점이 남아 있음을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또 한가지 이번 대회에 北韓代表들도 참석했습니다.

會長 몇명이나 왔었습니까?

金 오기는 네명이 왔는데 한명은 대사관 직원같고 한명은 정보원같았고 한명은 통역을 하던데, 그래서 진짜는 잘해야 1~2명 정도 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우리가 아무

래도 장소가 공산국가기 때문에 위축됐지만 나중에 말도 걸어보고 저녁식사라도 하자고 하니깐 그들이 슬슬피해요. 오히려 우리가 몇몇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의 국가적인 실력에 자신이 있었습시다. 그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이런 모임은 士協會다, 家協會다를 떠나서 전체 건축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음 마닐라 대회에는 보다 많은 건축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會長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金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축가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의 회원만으로 국한 시키는 것은 불식해야 하겠습시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건설업자도 오고 자재메이커에서도 와요. 그리고 특히 잡지사에서도 많이 왔어요. 記者들이 와서 취재를 열심히 하더군요. 우리 士協會에서도 매월 잡지가 나오잖아요. 다른데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참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姜 그렇죠. 記者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르니까요. 꼭 필요한 겁니다.

金 네,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꼭 이루어져야겠고; 또 한가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학생작품 전시회관계인데 우리가 그동안 후진 양성에 등한시 하지 않았는가 하는 自省이 느껴 지더군요.

會長 네—, 좋은 말씀입니다...

金 이것이 그곳에서 뼈저리게 느낀점인데 학생작품전과 어린이 그림 전시등을 그곳에서 한 것은 그만큼 관심을 집중케하고,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싹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심어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어느단체가 주관으로 해서 하든 학생작품전시, 장학금지급, 졸업작품심사 같은 것을 주도 해야 할 줄 압니다. 후진양성을 위한 投資로 말입니다.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후진 양성위해 공동보조 취해야하고—, 학생작품 다음 기회에 본격 출품토록 지도해야

崔 우수한 학생들은 3년마다 열리는 UIA 총회에 옵저버로 참석케 한다든지 하는 특혜를 주는 방법 같은것도...

金 그렇죠. 또 한가지는 여러 단체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친목이 너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곳엘가 보니까 대회라는게 별게 아니잖아요. 만나서 낯을 익히고 얘기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떤 발전이 있는 것이고 뭔가 이루어지는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도 그런 모임을 왜 못했는가 하는 감이 들

더군요. 학생들도 참여시키는 방법같은 것도 시도해 보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혹은 서적
슬라이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후진
양성의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會長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본회에서 지금 열리
고 있는 자재전시회가 끝나는 대로 그 장소를 건축인들이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내부 시설도 다시 잘 해 놓
았습니다. 슬라이드나 영화도 돌릴 수 있도록 해서 건축
가의 싸롱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의 하나로 어린
이 건축 그림그리기대회 같은 것을 이미 구상해 놓고 있
습니다. 후진양성을 위한다는 면에서 시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말씀들이 계셨지만 家協會나 士協會가 이
제는 공동보조를 취해 우리나라建築界의 새로운 방향모색
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제적인 회의나

□어느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건축인 모두가 참
가하는 웨스티발 같은 것을 열어 친목 다지는
기회 꼭 마련해야한다.

그밖의 큰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會長 UIA 총회 같은 회의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역
회의는 가능할 겁니다. 羅회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
죠.

羅 UIA 총회를 유치하려면 많은 준비가 뒤따라야 하고
또 지역별로 서구라과·동구라과·미주지역·아시아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으로 구분되서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개
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84년 마나라大會가 확정됐으니
가 다시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되려면 15년 후가 되겠죠. 결
국 그전에는 불가능하고 다만 83년의 아시아지역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었습니다. UIA 제4 지역 총회가
됩니다. 다만 중공·북한·몽고등 공산국가들의 참석 여
부가 문제가 되겠죠.

會長 UIA 총회는 어렵겠죠. 지역회의가 유치될 것
같다니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정
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羅 플랜드를 中心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반 소련 감정
이 아주 강하고 서구문명이 그대로 들어와서 서구 어느나
라와 같았지만 우울하고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적인 면에서 “건축주도 국가요, 건축가도 국가에 속
해있고, 건설하는것도 국가다”하는 점에서 건축가의 개인
생활도 뒤져있죠. 그런면에서 자유로이 作品활동을 할 수
있고 예술적인 면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
한 것인가를 깨닫고 자부심을 가져서 이땅위에 보다 창조
적인 작품을 남겨야 한다는 努力을 해야 할 겁니다. 따라
서 건축가의 지위향상은 건축가 스스로의 문제로서 각자
가 향상되도록 힘써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구라파나 미국
에서도 건축가들이 자체내에서 대회를 열고 전시회를 열
어서 일반이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가의 지위향상은 바로 건축가스스로의 손
에 달려있어-, 노력할 때 당국·일반의 인식도
새로워 진다.

會長 부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총회같은걸 하면관
계 당국에서 인사차 참석하는 것을보면 건축사의 지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방법으로 건축가의 축제, 웨스티발 같은것을 생
각해 보고 싶어요.

會長 家協會와 士協會가 합동으로 말입니다.

崔 그렇죠. 그게 좋습니다.

會長 김지방 건축가들도 함께 모여 뜻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국의 관심도 새롭게하
는 계기가 될줄 압니다.

羅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뒷받침 해주느냐에
따라서 건축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결정
되는 것이 겠죠. 우리도 로마의 문화, 마야문화와같은 건
축에 집약되서 문화예술로 남는 조형예술이 우리 건축가
의 손에 의해 남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會長 네, 감사합니다. UIA 대회를 계기로 여러가지 측
면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
들이 결국 우리자신의 문제들이고 또 해결해야 할 숙제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체에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자세
로 세계 속에서 한국건축의 지위를 굳히는 作業에 앞장서
야 겠습니다. 오랜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